



해외건설 패키지 진출 활성화 전략 세미나
3.22(수) 14:30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해외건설 패키지 진출 활성화 방안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정지훈 책임연구원



Contents

I

패키지 진출의 필요성 등 주요 배경

II

2023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III

해외건설 수주 현황 및 글로벌 위상

IV

해외건설시장 환경 변화 및 초대형 프로젝트

V

방위산업, 스마트팜 등과의 해외건설 패키지 진출 모델(예시)

VI

결론 및 시사점



I. 패키지 진출의 필요성 등 주요 배경



-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23.2.23)에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이 발표됨
- 동 전략 관련 신수출동력 12개 중 해외건설·플랜트, 방위산업은 수주전략산업으로, 스마트팜은 신수출 유망산업으로 지정된 바 향후 부처별 협업체계 구축 등 수출역량이 결집될 것으로 기대

제4차 수출전략회의(2.23)에서 지정된 신수출동력 분야

<신수출동력 12개 분야>

수주전략산업

1. 원전
2. 방위산업
3. 해외건설·플랜트
4. 녹색산업

신수출 유망산업

5. 농식품
6. 수산식품
7. 스마트팜
8. ICT서비스
9. 콘텐츠
10. 에듀테크
11. 의약품·의료기기
12. 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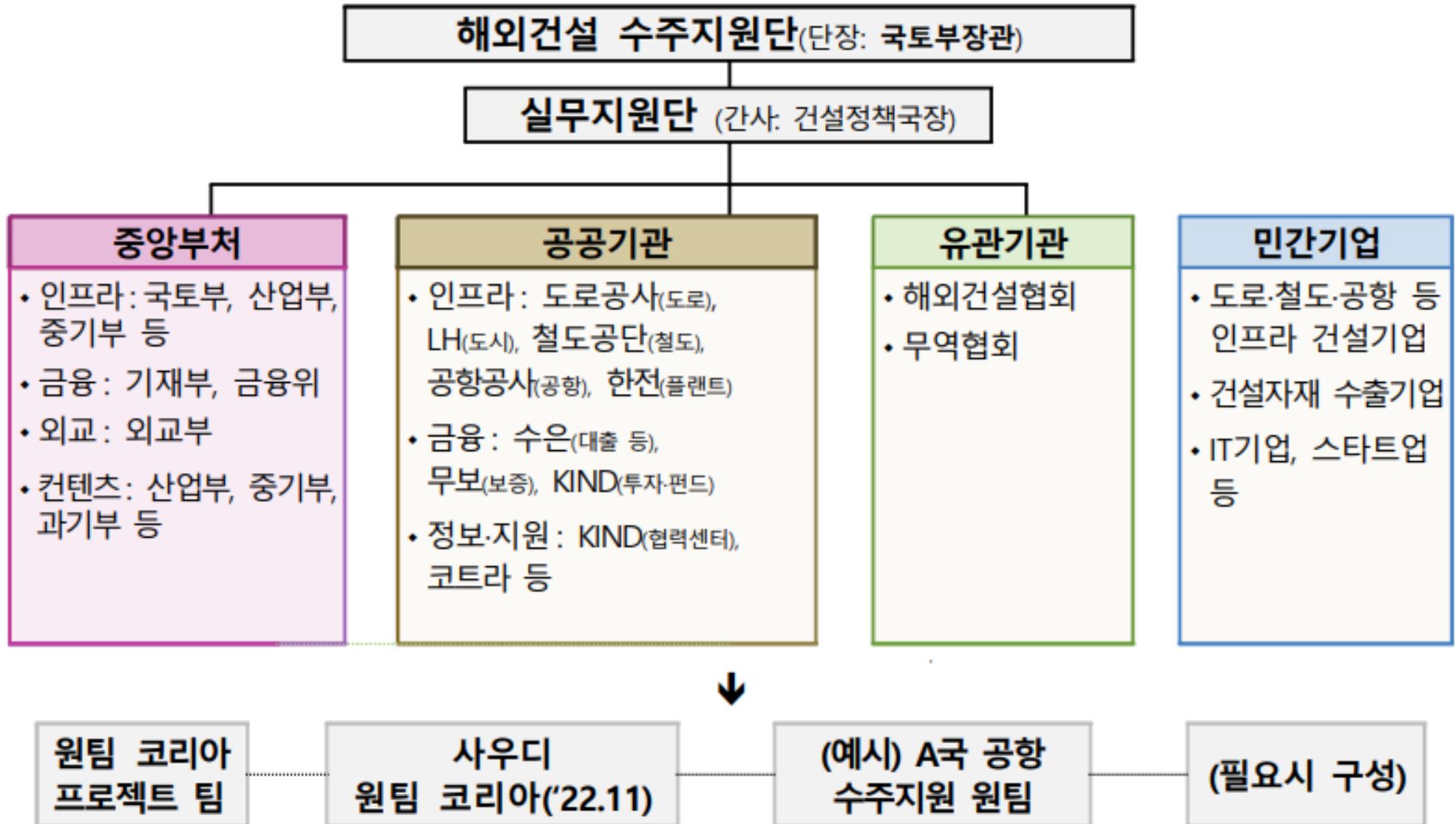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 영상>



- (목적) 해외건설의 경쟁력 강화 및 수주 확대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주요 사업 발굴 및 범정부 패키지 진출 추진
- (주요역할) ① 주요 프로젝트별 최적의 “원팀 코리아” 구성 및 패키지 진출 ② 해외건설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 ③ 해외건설 관련업계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구성·운영) 국토부장관을 단장으로 기재·외교·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프라공기업·KIND, 유관기관, 기업 등 민관 합동조직 구성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 국토교통부]



II. 2023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 ('23년 전망) 글로벌시장조사기업 IHS Markit에 따르면, '23년 세계건설시장은 '22년 대비 2.8% 성장한 13조 8,831억불로 전망
- 이와 관련해 각 국의 공공 인프라 투자 정책 등 성장 요인 외에 금리 인상을 비롯한 성장 저해 요인이 혼재된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성장 요인 : ① 각 국의 공공 인프라 투자 우선 정책, ② 고유가 지속시 중동 산유국의 발주 환경 개선, ③ 코로나 엔데믹 전환 기대에 따른 건설시장의 점진적인 정상화
 - 성장 저해 요인 : ① 주요국의 고금리 지속 여부, ②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폭, ③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건설시장 규모·성장률 추이 및 전망(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지역별 건설시장규모 전망(단위: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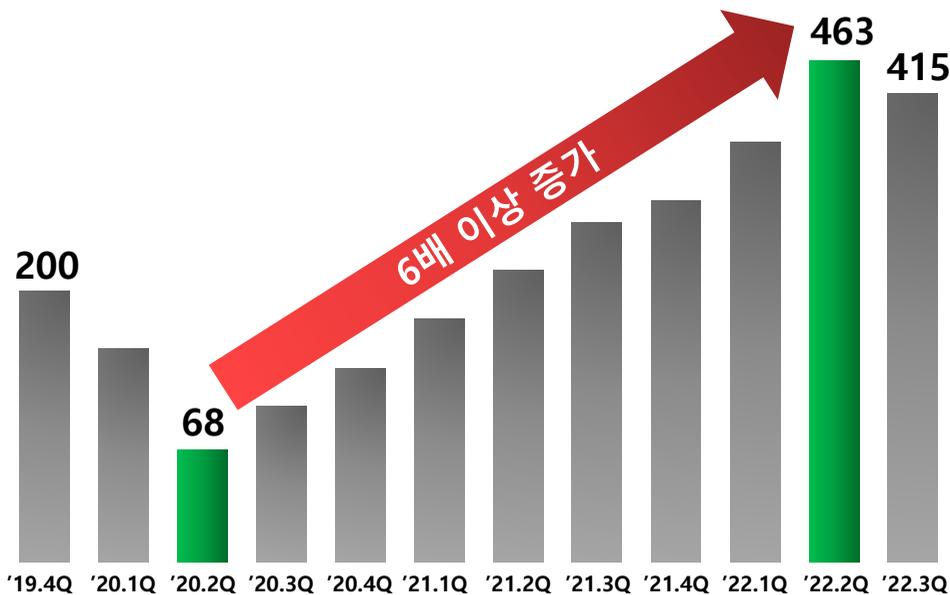
구분	2022	2023	성장률
중동	6,177	6,943	12.4
아시아	66,431	68,027	2.4
북미·태평양	24,624	25,201	2.3
아프리카	1,107	1,118	1.0
유럽	30,608	31,162	1.8
중남미	6,052	6,380	5.4
합계	134,999	138,831	2.8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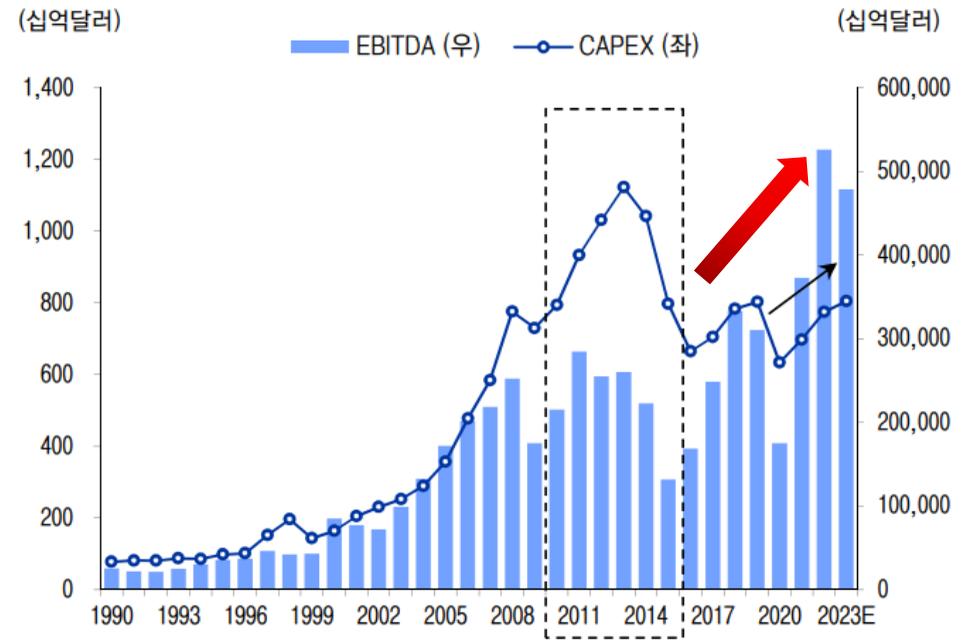
- '오일머니'가 유입되고 있는 중동 건설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중동 산유국은 최근 80불 내외의 국제유가에 따라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있음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유가 폭락시기인 '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중동 발주처의 수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됨. 수익은 대규모 시설투자(Capital Expenditure)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가 형성
- Exxon Mobil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은 '21년부터 CAPEX.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다소 시차가 있겠으나 정유·석유화학공장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의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Aramco 순이익(Net income) 추이(단위 : 억불)



[출처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11-01/saudi-aramco-makes-second-highest-profit-on-surging-oil-prices?leadSource=verify%20wall\('23.1.25\)](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11-01/saudi-aramco-makes-second-highest-profit-on-surging-oil-prices?leadSource=verify%20wall('23.1.25))]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CAP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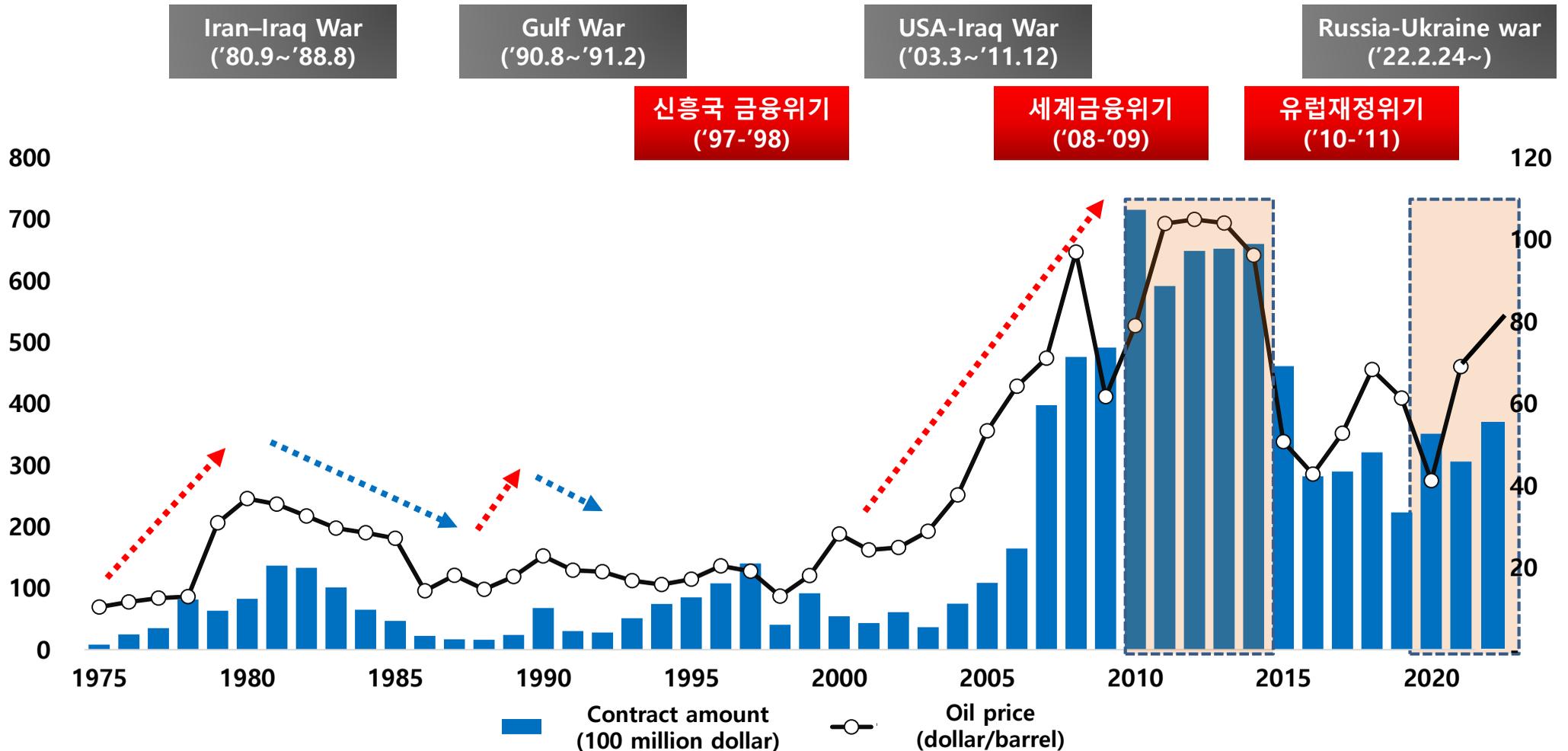
[출처 :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ICAK 정책지원센터]



Ⅳ. 해외건설 수주 현황 및 글로벌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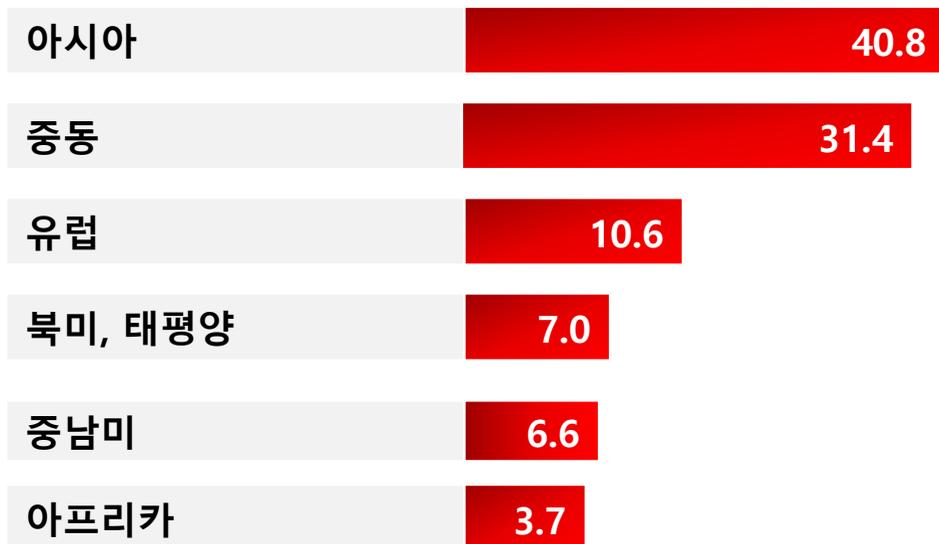
- 고유가 기조(80~100불/배럴) 시기인 '10~'14년 동안 654억불의 연평균 수주액을 기록했으나, '15년 이후 저유가, 국내 부동산 호황 등으로 최근 5년('18~'22년)간 평균 수주액은 302억불임
- 일반적으로 ① 고유가 기조 지속 → ② 주요 산유국 재정 여건 개선 및 발주처의 수익 증가 → ③ 대규모 시설투자(CAPEX.) 및 인프라 발주 확대 → 해외사업 기회 증가 등 선순환 구조 형성



[출처 : 세계은행,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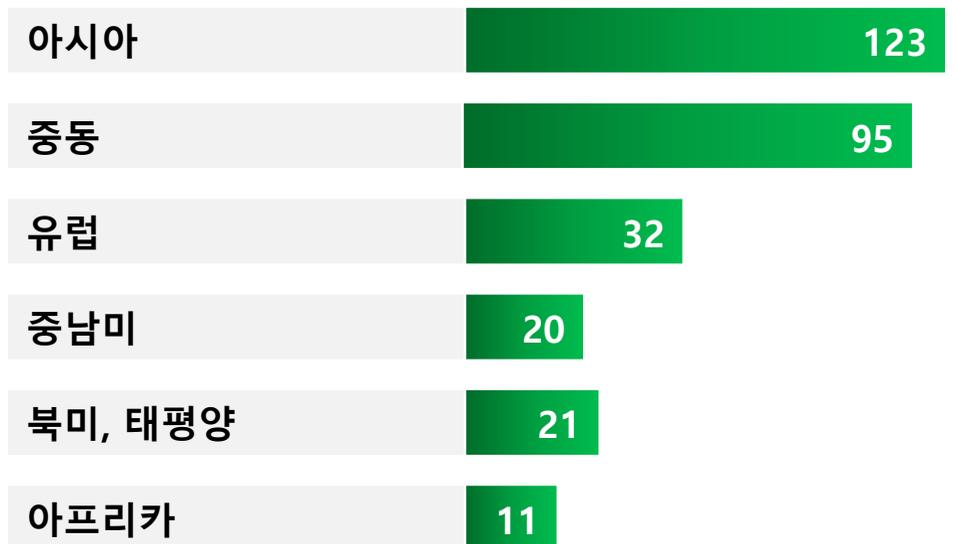
- (총괄) 최근 5년('18~'22년)간 총 수주액은 1,511억불이며, 연평균 수주액은 302억불 수준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및 중동 건설시장 수주액이 전체의 72% 수준인 1,091억불임
 - 아시아에서 전체 수주액의 41% 수준인 616억불을 수주했으며, 아시아에 이어 중동 수주액은 475억불로 전체의 31%임
 - 다음으로 유럽 수주액 159억불(비중 11%), 북미·태평양 수주액 106억불(비중 7%), 중남미 수주액 99억불(비중 7%), 아프리카 수주액 55억불(비중 4%) 순임

2018~2022년 지역별 연평균 수주액 비중(단위: %)



[출처 :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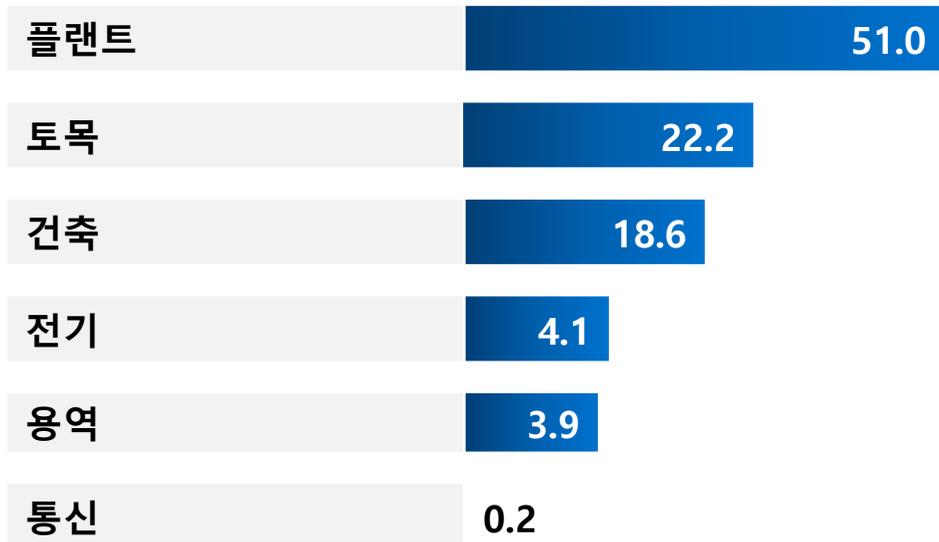
2018~2022년 지역별 연평균 수주액(단위: 억불)



[출처 :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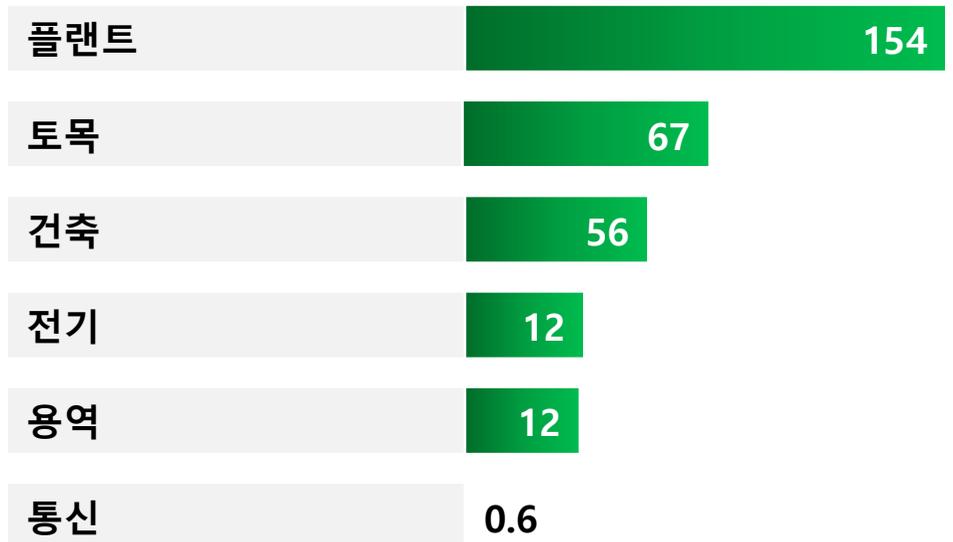
- (공종별) 여전히 발전소, 정유, 화학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토목 및 건축 분야 수주도 꾸준히 이어가며, 최근 5년 평균 점유율 41%를 기록 중임
 - 최근 5년간 산업설비에서 전체 수주액의 51% 수준인 770억불을 수주함. 산업설비에 이어 토목 분야 수주액은 336억불로 전체의 22%를 점유하고 있음
 - 이어 건축 281억불(비중 19%), 전기 61억불(비중 4%), 용역 60억불(비중 4%), 통신 3억불(0.2%) 순으로 나타남

2018~2022년 공종별 연평균 수주액 비중(단위: %)



[출처 : ICAK 정책지원센터]

2018~2022년 공종별 연평균 수주액(단위: 억불)



[출처 : ICAK 정책지원센터]

- 미국 건설 정보기업 ENR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위 250개 기업의 해외건설 매출액은 2020년 4,203억불 대비 5.3% 감소한 3,978억불 규모임
- 코로나 영향 하에서도 우리나라 매출액은 227억불, 점유율 5.7%로 2020년(214.2억불, 5.1%) 대비 점유율이 0.6%p. 증가하며, 세계 5위를 유지하고 있음
 - 250대 기업 순위에 포함된 한국기업은 전년 대비 1개 증가한 12개사임

국적별 해외건설 매출 현황

순위	국적	해외매출(억불)	점유율(%)	건설사수
1	China	1,129.5	28.4	79
2	Spain	517.8	13.0	8
3	France	504.3	12.7	3
4	USA	241.9	6.1	41
5	S. Korea	227.3	5.7	12
6	Italy	222.4	5.6	13
7	Turkey	204.4	5.1	42
8	Japan	165.3	4.2	11
9	Netherland	89.7	2.3	3
10	Germany	64.4	1.6	3

[출처 : ENR, ICAK 정책지원센터]



***IV.* 해외건설시장 환경 변화 및 초대형 프로젝트**



-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인 EU Taxonomy를 비롯해 세계적인 탄소저감 움직임에 따라, 건설시장 환경 전반에도 급속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22년부터 주요 해외건설 기업이 경영 키워드를 ESG·신사업으로 꼽은 만큼, 관련 전담 조직 신설, 친환경 사업 확대를 추진 중임
- 해외시장의 발주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Green EPCM(친환경 설계-저탄소 자재 구매-저에너지 시공·운영) 체제 조기 정착 및 시장 선도가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친환경·저탄소로의 발주 트렌드에 맞는 신재생 강소기업 M&A, 기술제휴 등 친환경사업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EU Taxonomy의 환경 목표 및 판단 조건

환경 목표	판단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방지 및 제어 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②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경제활동별 기술 선별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활동 식별 및 개발

- EU 집행위원회는 '22.7월, 원자력 발전을 EU Taxonomy에 조건부로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함. 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즉, 원자력 발전에 참여하는 건설사 및 금융기관은 ESG 경영 부담이 과거보다 완화되는 만큼 원전 사업에 대한 추진력도 확대될 전망
- The economist에 따르면, 원전 수출 5대 국가는 러시아, 중국, 프랑스, 한국, 미국으로 나타남

원전 수출 5대 국가 현황



[출처 : The economist]

- 글로벌컨설팅기업 McKinsey에 따르면, 건설업의 이익률은 4.4% 수준으로 제조업, IT 기술업 등 17개 산업군 중 15위에 불과함
- 건설업이 수익성·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1. Modular Construction. 2. Digital Twin 등 Digital Transformation, 3. 전 생애주기에 대한 BIM 적용·활용을 추진해야 함

건설업 혁신을 위한 3대 Trend

Trend. 1



Offsite/Modular Construction

50%

construction projects will use offsite/modular manufacturing and/or 3D printing within the next 5 years.

Trend. 2



Digital transformation

65%

of the industry will implement digital asset lifecycle strategies such as BIM over the next 3 years.

Trend. 3



Full asset lifecycle support

14%

Increase in profit margins for those contractors that embrace the asset lifecycle through the design-operate-maintain continuum

- 정부는 파급효과·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주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외교·금융 등 총력 지원할 계획임(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중)
- 민관 합동으로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인프라·컨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스마트시티 내 5G, 스마트물류, 신재생에너지 포함) 수주를 적극 발굴하고 있음

주요 핵심 프로젝트

사업명	규모(억불)	사업내용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신도시	5,000	· 사우디~이집트~요르단에 걸쳐 대규모 산업·주거특구 건설 (주요 사업 분리발주)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358	· 균형 발전 위해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주 발리파판 외곽 지역으로 수도 이전
폴란드 신공항 건설	74	· 기존 국제공항(바르샤바 쇼팽)을 대체하는 공항 및 철도 복합 교통허브 건설
쿠웨이트 알주르 석유화학단지 건설	100	· 알주르 지역에 설치되는 신규 석유화학 복합단지

[출처 :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 (사업 내용) 사우디 북서부 Tabuk주 약 26.5천km²(서울의 44배) 부지에 미래형 산업, 주거, 관광 특구를 개발하는 5,000억불 규모의 사업임. NEOM은 아랍어로 'New future'를 의미함
- 총 6개 권역 사업 중 3개 권역에 대해 왕세자가 직접 사업컨셉 발표
- 더 라인(선형도시, '21.1), 옥사곤(산업단지, '21.11), 트로제나(산악관광, '22.3)
- (발주처) NEOM Co.(국영공공투자펀드(PIF)가 100% 소유)

네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위치 및 조감도



1. 더 라인(The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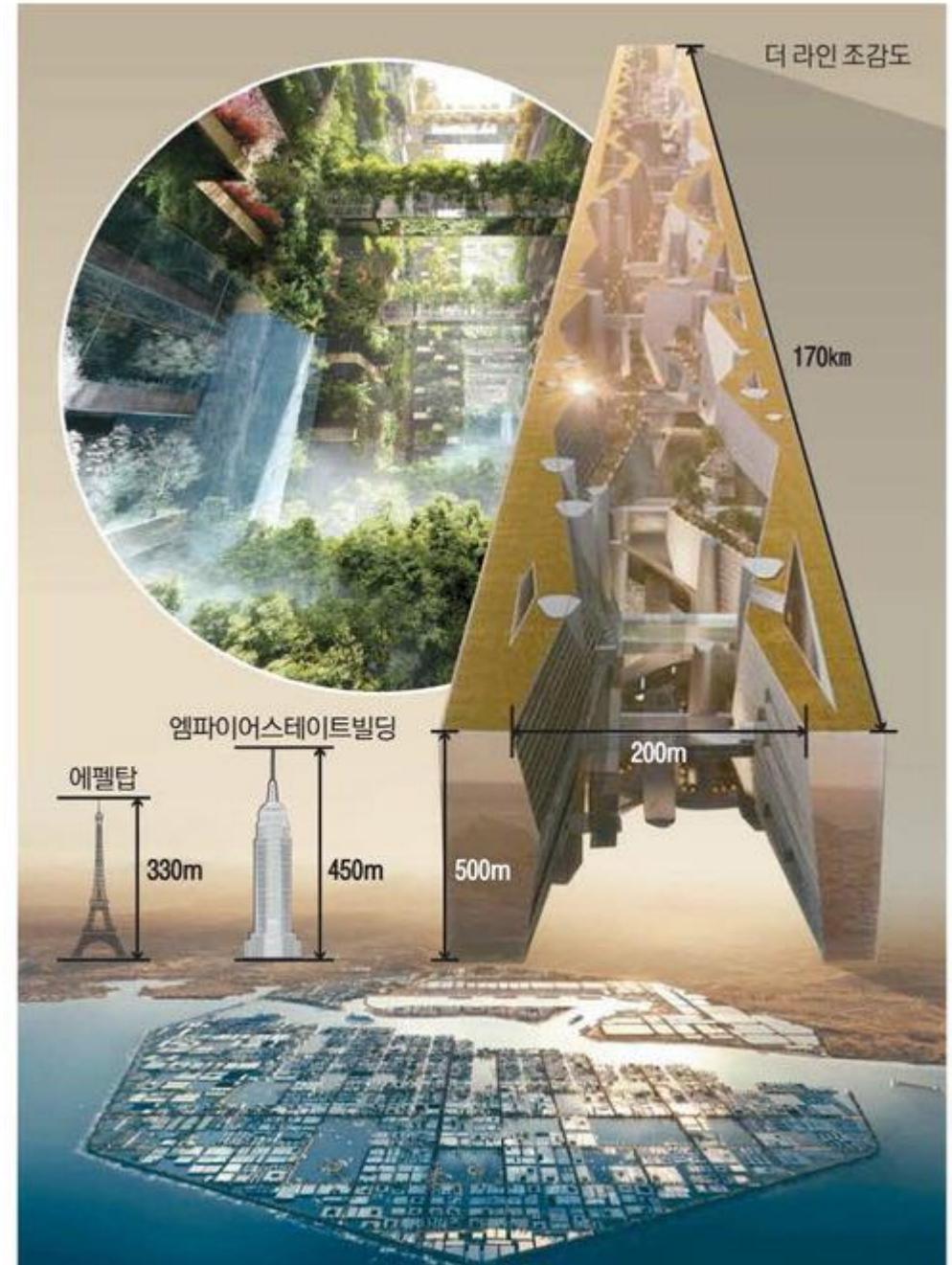
- 외관이 거울로 된 도시로 높이 500m, 폭 200m, 길이 170km 규모의 거대 도시

2. 옥사곤(OXAGON)

- 지름 7km의 팔각형 형태
- 바다 위 미래형 복합 산업단지

3. 트로제나(TROJE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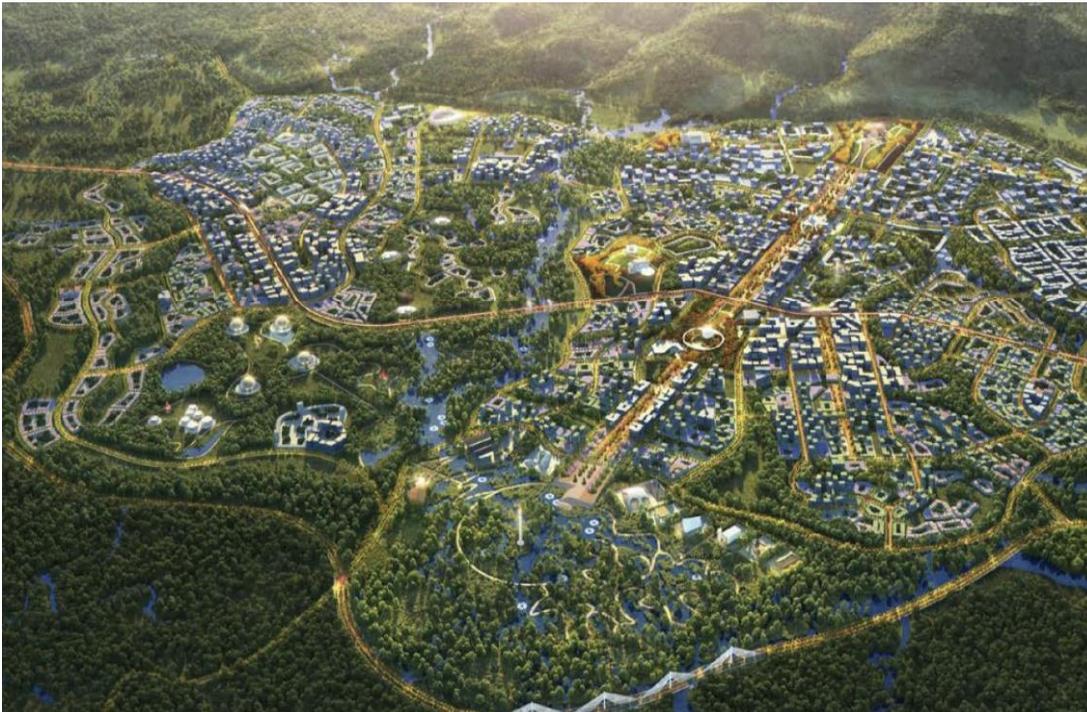
- 산악지대를 관광단지로 개발



[출처 : 매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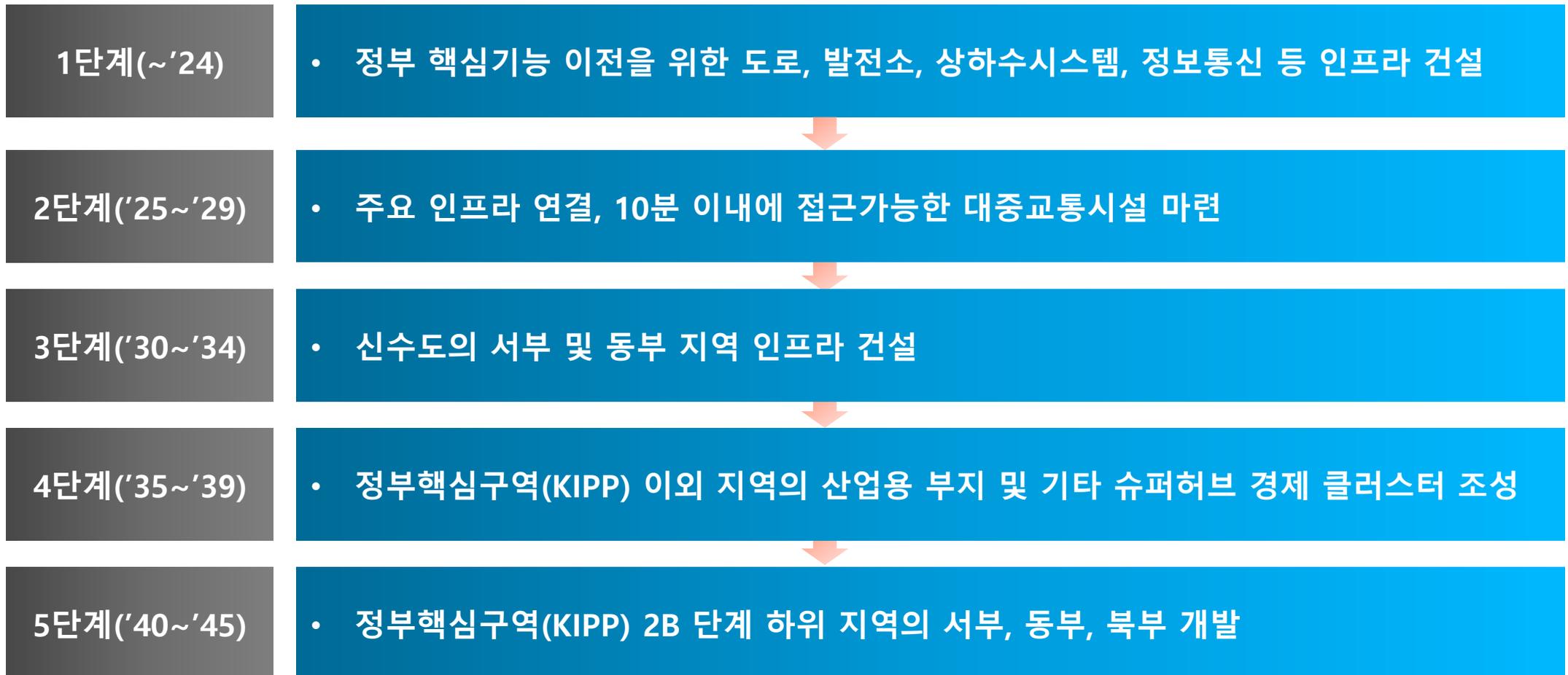
- (사업 내용) 자카르타의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 식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를 이전하는 사업임. 이전지는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 州 발릭파판으로 사업비는 358억불 규모임
- 예산 비중 : 정부재정(19%), PPP(55%), 민간투자/국영·지방공기업(26%)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공공사업주택부 등 주요 부처가 동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위치 및 조감도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가 진행 중인 입찰패키지는 총 82건('22.10월 기준)이며, Sepaku Semoi 댐('20.7월), 공사용 도로('20.10월) 등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 예정인 컨소시엄 관련 건설투자자 모집 추진 중
- 1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정부 핵심기능 이전을 위한 도로, 발전소, 상하수시스템, 정보통신 등 인프라 건설이 주요 내용이며, 2045년까지 총 5단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될 계획임





V. 방위산업, 스마트팜과의 해외건설 패키지 진출 모델(예시)



<전략①>
수역결 주량집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

- ① 중동 등 유망 지역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원팀 코리아 협력

- ②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전략②>
민간 주도적 강화

민간 금융 선순환체계 구축

- ① 민간 투자자금 유동화 지원
- ② 민간 대출채권 거래 활성화
- ③ 인프라 금융 투자 협의체 신설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

- ① 우수 신기술 개발·활용 지원
- ② 민간기업 수주 경쟁력 강화
- ③ 규제 합리화 및 근로자 혜택 강화

<전략③>
공공 전후방 지원대

선제적 발굴/기획

- ① 공공부문의 타당성 조사, 금융자문 확대
- ② 현지 입찰·법률·정책 정보제공 강화
- ③ 다자 및 양자 협력 강화

입찰/금융지원 강화

- ① 공공기관 역할 강화
- ② 경험자금 제도개선·연계 강화
- ③ 정책 금융기관 해외 사업 지원 강화

성공적 사업 준공

- ① 수주 후 진행상황 점검
- ② 애로사항 적극 해소
- ③ 통계 관리·홍보 강화

<전략④>
원전 친환경 수주 활성화

- 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를 통한 국가별 수출전략 마련
- ② 중동 등 주요 발주처와 수은간 금융 약정 체결 확대
- ③ R&D 투자 및 친환경 정책자금 확대, 원전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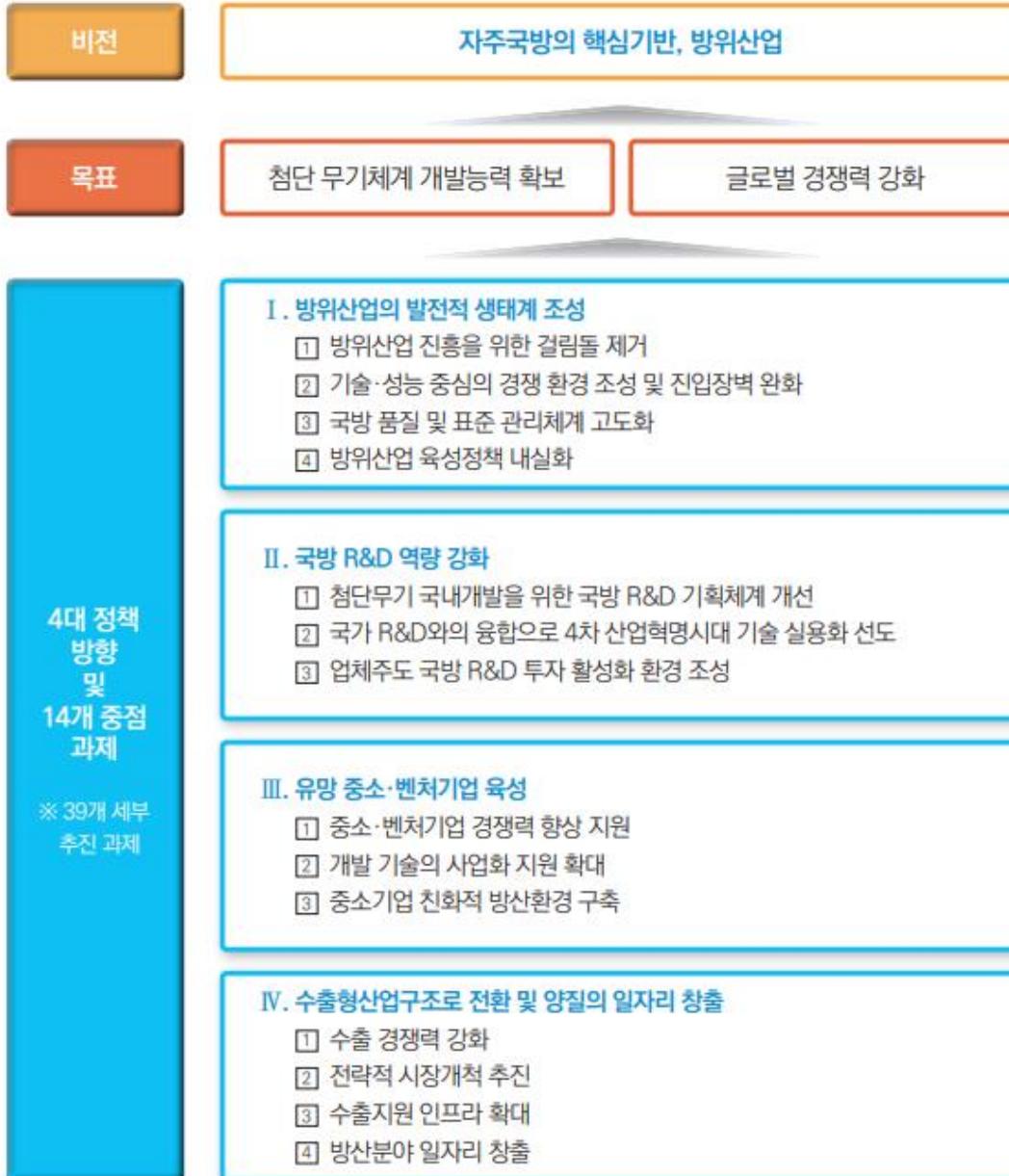
일자리
연 5.5만개 창출

수주액(억불)
300 → 500

시장점유율(위)
5 → 4



●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방산 수출 관련 정책 방향 및 중점 과제>

- **방향**
 - 수출형산업구조로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점 과제**
 - 수출 경쟁력 강화
 - 전략적 시장개척 추진
 - 수출지원 인프라 확대
 -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출처 :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18-'22)]

- 정부는 해외건설 지원을 위해 EDCF·수출금융 등(연간 20조원) 및 투자(연간 약 3천억원)를 비롯해 기업에 정보제공·인력양성 사업(연간 250억원)을 진행 중

해외건설 정부 대표 지원정책

외교지원	금융지원	시장정보제공, 컨설팅 지원	인력양성 등
고위급 수주지원 G2G 협력사업 발굴 국제기구 협력	EDCF, EDPF 발주처 FA 체결 정책펀드, 보증, 보험 무상원조(ODA) 등	현지 정보, 해외시장 정보 시장개척 지원 진출국가 법률·세무 컨설팅 선진 M&A 사례 정보 제공	해외현장 훈련지원 해외건설마이스터고 재직자 대상 교육 법인세·소득세 관련 R&D 지원 등

[출처 :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정리]

진출전략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구분	외교지원	금융지원	기타
중동	고위급 수주지원단	주요발주처 F/A 체결	법인세·소득세 감면
아시아	G2G 협력사업	공적자금 지원(EDCF,EDPF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용 지원
중남미	국제기구 협력	EDPF, MDB	정보망 구축
유럽·미국·호주	국제기구 협력	정책펀드	M&A지원
고위험국	고위급 수주지원단	공적자금 지원(EDCF,EDPF 등)	정보망 구축

[출처 :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정리]

- 우리기업 해외진출 확대 및 수주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초기진출 - 사업발굴 - 사업수행)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주요 지원사업

구분	지원제도	주요 내용
사업발굴	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수익성·리스크 등 평가, 기업 진출판단 지원
금융지원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개발도상국 진출 시 초저금리 차관 지원
	EDPF(경제협력증진자금)	중소득국 진출 시 저금리 대출 지원
	ECA 금융	수은 재원으로 진출기업 대출
	GIF·PIS 펀드	정책펀드 조성, 투자
	KIND 지분투자	KIND가 우리기업 진출사업 지분투자 참여
	ODA(공적개발원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원조
정보제공	해외건설 통합정보시스템	유망 진출국 센터(6개소) 운영을 통해 발주처와 네트워크 형성, 시장·발주 동향 제공
	현지 인프라 협력센터	유망 진출국 센터(6개소) 운영을 통해 발주처와 네트워크 형성, 시장·발주 동향 제공
민원해소	해외건설 멘토링 센터	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해건협 창구를 통해 진출 지원제도 소개·매칭, 애로사항 접수
인력양성	OJT	중소기업 해외 근로자에 대해 현장훈련 지원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분야 조기·특화교육 실시

[출처 :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정리]

● 국토교통 ODA 사업

- 목적 : '13년부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 인도주의 실현,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및 우리기업의 진출기반 조성
 - 사업 구분 : ① 인프라 ODA사업(프로젝트, 개발컨설팅) ② 초청연수(고위공무원 대상)
 - 지원대상 : 국토교통 인프라 분야(주택·도시, 건설기술, 교통, 물류, 도로, 철도, 공항 등)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기업(엔지니어링, 시공사, 컨설팅사 등), 공공기관 등
 - 대상사업 : 2024년에 착수 가능한 주택·도시·건설기술·교통·물류·도로·철도·공항 등 국토교통 인프라 분야 ODA 사업
 - 대상국가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선정한 ODA 적격 수원국 중 제3기 중점협력국(27개국)의 중점협력분야(CPS)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 * 단, 非중점국가·분야는 정상외교 후속과제 여부, 경제·통상전략과의 관련성, 유·무상 연계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 가능

[출처 : 2024년도 시행 ODA사업 및 초청연수 모집 공모문 기준('22.7)]

● 해외건설 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 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소요되는 프로젝트 조사, 분석 비용, 수주활동비 지원
- 사업 구분 : ① 프로젝트 지원사업 ② 공동협력사업
 - 프로젝트 지원사업 :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수주활동 지원
 - 공동협력사업 : 시장조사단 파견, 발주처 초청 협력행사, 발주처 장기 초청연수, 컨설팅 지원 등
-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 상 해외건설업자인 중소·중견기업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사업

- 목적 : 해외건설 현장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현장 인력 파견비 및 훈련비 지원 등
- 사업 구분 : ① 해외건설 현장훈련, ② 인프라 공기업 인턴십, ③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지원
-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공사 현장을 보유 중인 중소, 중견기업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정부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저소득·하위중소득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유상 원조('87년부터 총 24조원 승인)로 연 1~2조원 규모임
- (승인금액) '17년 1.6조원→'18년 2.1조원→'19년 2.7조원→'20년 0.9조원→'21년 2.7조원

● 경협증진자금(EDPF,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 수은 재원으로 유망 신흥국(중소득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기업진출을 지원하는 대출('19년부터 총 4천5백억원 승인)로 연 2~3천억원 규모임
- (승인금액) '19년 600억원→'20년 860억원→'21년 3,020억원

● 수출금융

- 수은 재원으로 해외진출기업 개별 대출로, 연 13~14조원 규모임
- 저신용도 국가에 대한 유상원조(특별계정) 등 포함: 총 2조원 규모 조성, 6,300억원 승인

● 해외보증

- 해외진출기업에 제공하는 보증으로, 연 160조원 규모임
- (보증금액) '17년 145조원→'18년 149조원→'19년 156조원→'20년 165조원→'21년 196조원

● 직접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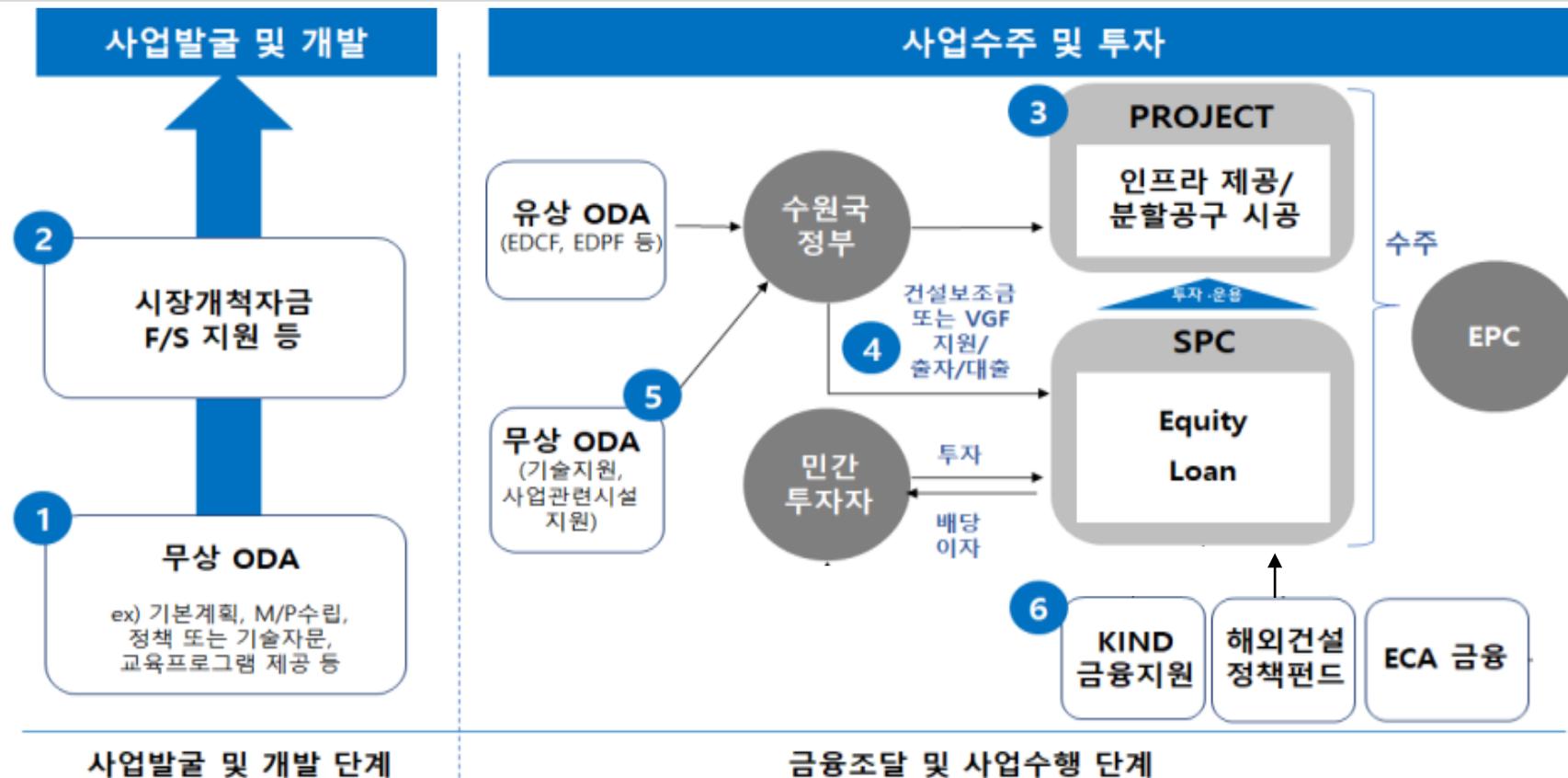
- KIND 자본금·회사채를 재원으로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해외건설사업에 일부 지분투자를 하며, 연 1~2조원 규모임
- '18년부터 현재까지 10개국, 18개 사업에 4,485억원 투자(건당 249억원 규모)
- (승인금액) '17년 1.6조원→'18년 2.1조원→'19년 2.7조원→'20년 0.9조원→'21년 2.7조원
- (주요사업) 네팔 UT-1 수력발전사업 : EPC 총액 3.6억불 중 5천5백만불(25%) 투자

● 정책펀드

- 국토교통부 출자 펀드재원을 바탕으로 KIND가 GIF·PIS 펀드를 운영하며, 투자운용사가 해외건설 사업에 펀드를 투자
- '18년부터 현재까지 11개국, 17개 사업에 5,381억원 투자(건당 317억원 규모)
- (주요사업) 베트남 칸화성 태양광발전 시공사업:총 1,400억원 중 GIF 7호 320억원(23%) 투자

- '신규 사업 발굴'부터 '운영·관리' 등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 수단을 연계한 복합금융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유·무상 ODA, 시장개척사업, 정책펀드, ECA 금융 등 각 금융별 특성을고려한 복합금융을 통해 투자개발형사업의 사업성 제고
 - * 복합금융형태 투자 사례(미얀마 KMIC 사업) : 무상 ODA(KSP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정책자문)를 통한 사업 기획·발굴, 유상 ODA(인프라 시설 지원)

주요 지원정책과 결합한 복합금융 구조(예시)



●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확대 방안

추 진 과 제	[1]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외 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 조성 ②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③ 사절단 파견·수출상담회 및 시연회 ④ 스마트팜 수출 전략회의 구성 ⑤ 수출 기본 정보 제공 ⑥ 무역 금융 이용 확대
	[2]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심의 종합 지원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수출 거점화 ② 스마트팜 관련 R&D 활성화 및 기술 표준화 ③ 한국형 스마트팜 고급화 모델 개발
	[3] 핵심 전략국가 중심으로 K-Farm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CIS)·동남 아시아 ② 중동(UAE·카타르 등) ③ 아프리카

<스마트팜 수출 관련 추진 과제>

-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지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심의 종합 지원 체계 마련
- 핵심 전략국가 중심으로 진출 확대

[출처 :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격납고, 방위군 주택 건설공사 관련 해외건설 수주 사례

국가	사업	발주처	계약금액(천미불)
몽골	몽골신국제공항 격납고 콘크리트포장공사	몽고	770
몽골	몽골 신국제공항 격납고 - 콘크리트포장 공사	몽골 민항청	2,210
괌	괌 앤더슨공군기지 B2기 격납고 보안 및 통신공사	태평양 공군	956
사우디	리야드&젯다 항공기 격납고-전기공사	재무경제성	8,173
괌	정비격납고 신축공사	미 해군성	18,542
사우디	타이프 공군기지 지하격납고 및 부대시설 공사	국방항공성	659,723
사우디	킹 압둘 아지즈공항 격납고 건설공사	석유광물성	1,994
말레이시아	수방 공군 기지 격납고 건설공사	국방성	26,738
사우디	젯다 신국제 공항 747 격납고 시설 공사	국방항공성	1,500
사우디	담맘방위군 주택 및 공공 시설공사	방위군 사령부	89,850
사우디	리야드 방위군 주택 및 공공시설공사	방위군 사령부	364,843
사우디	담맘 방위군 주택 건설 공사	방위군 사령부	212,760
사우디	알하사 방위군사령부 장병숙소 및 공공 건물공사	방위군 사령부	784,675

[출처 : 해외건설협회]

● 스마트팜, 농촌개발사업 관련 해외건설 수주 사례

국가	사업	발주처	계약금액(천미불)
중국	이닝 스마트팜 온실 및 부대시설 건축 및 기술 기자재 납품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	1,251
필리핀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용역	한국농어촌공사	152
캄보디아	기후탄력적 농촌인프라 개발사업 (도로 개보수)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18,118
캄보디아	기후탄력적 농촌인프라 개발사업 (도로 개보수)	지방개발부	27,177
가나	아쿠마단 농촌개발 및 채소단지 관개사업 사후관리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174
베트남	중부지역 광빈성 평화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 PMC 용역	한국국제협력단	468
캄보디아	농촌연결성 개선사업(RCIP) 지방도로 설계 및 시공감리 용역	지방개발부	3,319
세네갈	포도르 새마을 시범마을을 통한 농촌개발사업 PMC 용역	한국국제협력단	1,019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지하수관개 및 농촌개발사업 세부설계, 시공감리 컨설팅사업	관개개발위원회	3,510
에티오피아	지하수 관개 및 농촌개발 사업	관개, 전기, 상하수도청	3,332

[출처 : 해외건설협회]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방산수출 유망 Top10 국가는 중동(사우디아라비아, UAE), 아시아(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중남미(콜롬비아), 유럽(폴란드), 북미·태평양(미국, 호주)임

방산수출 유망 국가

순위	국가명	2020-24 GDP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	분쟁 가능성	2015~19 국내방산수출수주 (억달러)	2020~24 무기획득예산 (억달러)	국방방산 협력 관계	국내방산제품과의 연계성	예상 수출규모 (억달러)
1	미국	★	★	★	15	7,291	☆	T-50A 훈련기, 장갑차, 유도무기 등	100+
2	인도	★	★	★	3	582	★	대공방어체계, 소해함, 군수지원함	15+
3	사우디	☆	☆	★	5	300	☆	유도무기, 방어체계	10+
4	필리핀	☆	☆	★	5	36	★	잠수함, 초계함, FA-50, 곡사포, 군용차량 등	10+
5	인도네시아	★	★	☆	12	31	★	잠수함, T-50 훈련기, 수리온	10+
6	호주	☆	★	△	0.5	313	☆	장갑차, K-9 자주포, 천무	50+
7	UAE	●	●	●	00	169	☆	방어체계, k-9 자주포	10+
8	말레이시아	☆	☆	●	0.1	37	★	FA-50, 전투함, 임무함 등	10+
9	폴란드	●	☆	●	-	130	☆	전차, 무인기 등	5+
10	콜롬비아	○	●	☆	-	17	☆	FA-50, 해성, 신궁, 천궁	15+

주: ★ : A등급, ☆ : B등급, ● : C등급, ○ : D등급, △ : E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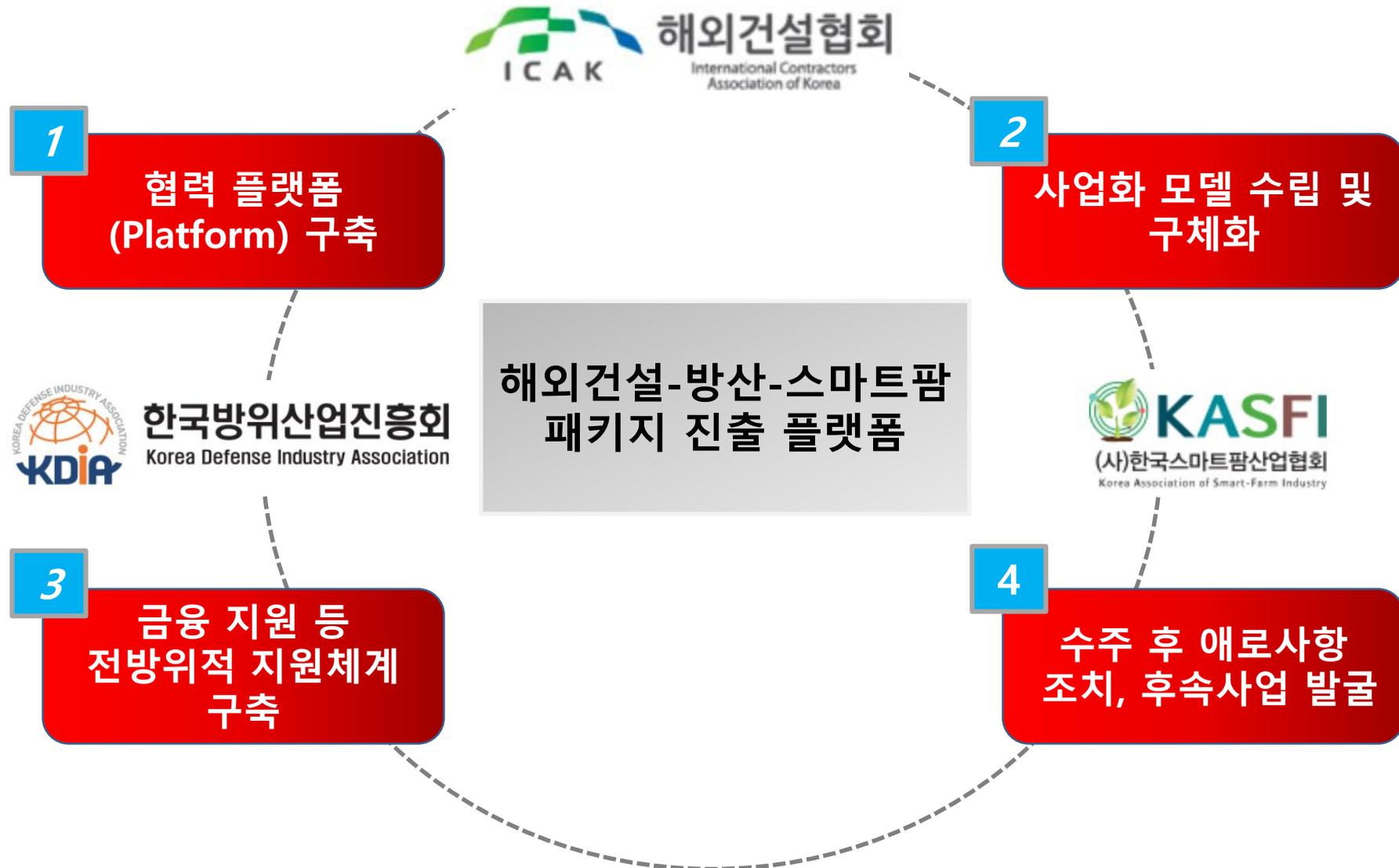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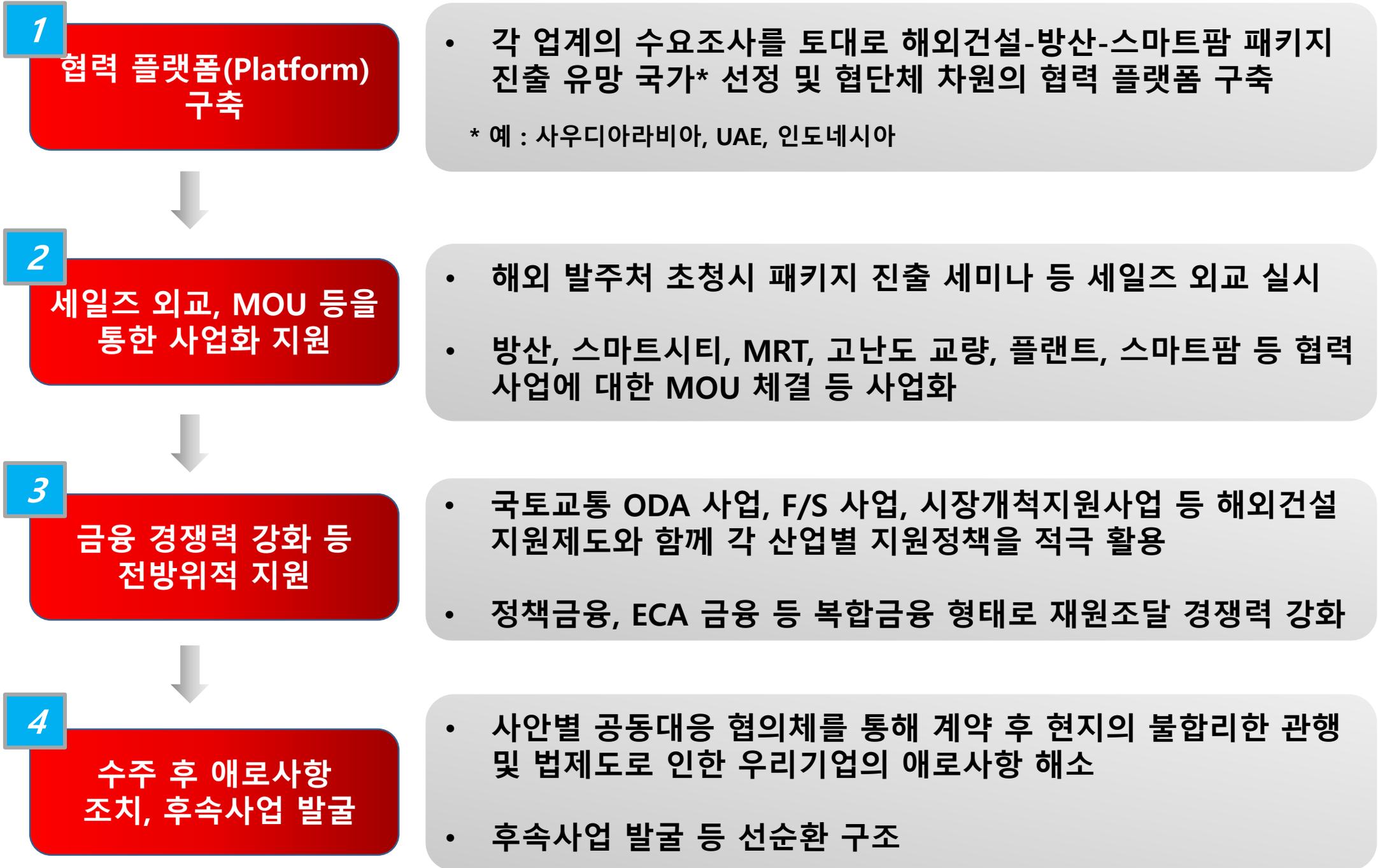
- 방산수출 유망 Top10 국가 중 8개국이 해외건설 수주 상위국가임
- 지역별로 보면, 중동(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시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유럽(폴란드), 북미·태평양(미국, 호주)로 나타남

최근 5년간('18~'22년) 해외건설 수주 상위국가 현황(단위 : 억불)

해외건설 수주 순위	방산수출 유망국가 순위	국가	최근 5년간 수주액	누적 수주액
1	3	사우디아라비아	170	1,562
2	-	베트남	120	466
3	7	아랍에미리트	112	832
4	5	인도네시아	92	258
5	-	싱가포르	75	467
6	-	러시아	65	171
7	-	중국	65	237
8	-	이라크	63	418
9	-	카타르	60	286
10	9	폴란드	54	73
11	1	미국	51	139
12	8	말레이시아	43	241
13	-	멕시코	41	101
14	4	필리핀	39	191
15	6	호주	37	174

-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해외건설 - 방산 -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 선정 및 협회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사업발굴, 기획, 사업화 등을 주도하는 패키지 진출 협력 플랫폼을 구성





● 해외건설-방위산업 패키지 진출 분야

해외건설

- 방위군 사령부 장병 숙소 공사
- 방위군 사령부 공공시설 공사
- 격납고 신축공사 및 도로포장 공사
- 군 기지 격납고 통신공사
- 격납고 전기공사

방위산업

- 항공기, 항공전투지원장비
- 전차, 장갑차
- 통신체계 및 장비
- 수상함, 잠수화
- 그 외 감지 및 정찰장비

● 해외건설-방위산업 패키지 진출 대상 국가



[주 : 방산수출 유망 Top10 국가(산업연구원) 중 해외건설 수주 상위국가]

● 해외건설-스마트팜 패키지 진출 분야

해외건설

- 스마트팜 온실 및 부대시설 건축
- 스마트팜 관련 급배수 등 수처리공사
- 스마트팜 지열·태양열 등 발전 플랜트
- 스마트팜 인근 도로, 수로 개보수공사
- 농촌개발사업 PMC 용역 등

스마트팜

- 스마트팜 물이용 기술
-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기술
- 스마트팜 자동화 기술

● 해외건설-스마트팜 패키지 진출 대상 국가



[주 : '제3차년도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자료 중 국가별 스마트팜 수출여건 분석 대상 국가]

[Pixabay]

- 협회는 올해 해외건설 멘토링 센터를 신설하여, 해외건설기업의 시장개척, 애로사항 등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함
- 최근 해외 격납고 사업 및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업계 상담 요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컨설팅 업무를 수행 중

※ 문의 : 해외건설 멘토링 센터 신동우 센터장(T.02-3406-1066, dwsheen@icak.or.kr)

< 해외건설 유관 기관 네트워킹 플랫폼 >



* KIND, 한국수출입은행 및 유관 부처, 금융기관, 단체, 연구원 등



VI. 결론 및 시사점



- 해외건설-방산-스마트팜 패키지 진출 확대를 위한 주요 방안 중 오늘 체결된 관련 협·단체간 MOU가 협력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에도 패키지 진출 모델과 관련해 업계 간 상호교류-유망사업 발굴-의견수렴 등 주요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 보완 등을 통해 사업 단계별 협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개별 프로젝트 수출 및 수주를 위한 기업차원의 역량 강화 노력 및 범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세일즈 외교 등 지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됨

<패키지 진출 모델(예시)>

해외건설

- 방위군 사령부 장병 숙소 공사
- 방위군 사령부 공공시설 공사
- 격납고 신축공사 및 도로포장 공사
- 군 기지 격납고 통신공사
- 격납고 전기공사



방위산업

- 항공기, 항공전투지원장비
- 전차, 장갑차
- 통신체계 및 장비
- 수상함, 잠수화
- 그 외 감지 및 정찰장비

해외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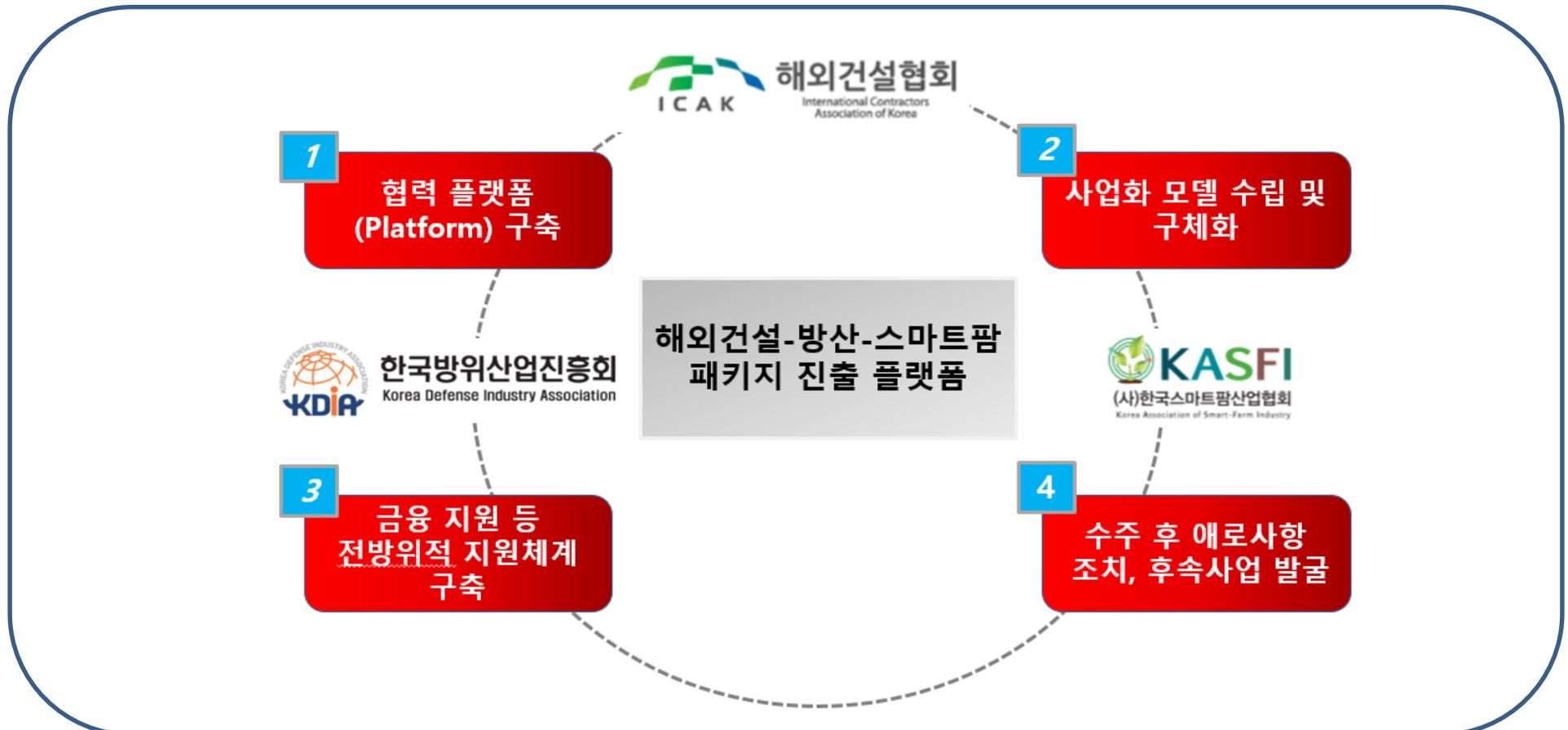
- 스마트팜 온실 및 부대시설 건축
- 스마트팜 관련 급배수 등 수처리공사
- 스마트팜 지열·태양열 등 발전 플랜트
- 스마트팜 인근 도로,수로 개보수공사
- 농촌개발사업 PMC 용역 등



스마트팜

- 스마트팜 물이용 기술
-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기술
- 스마트팜 자동화 기술

- 중장기적 측면에서 동 진출 모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 근로자 및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법률 개선에 대한 검토도 요구됨
 - * 기존 유망 사업 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진출 모델 구체화도 요구됨. 키이우 경제 대학(KSE)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1378억불 수준으로 추정되며, 15만 채의 주거용 건물 외에 수천 채의 학교, 병원, 종교 시설, 문화 시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 세계은행은 전쟁 복구 비용을 최소 3490억불로 추정
- 이는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강국 진입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됨과 동시에, 방산 및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국가경제 기여-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Cycle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감사합니다.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정지훈 책임연구원

jhjung@icak.or.kr

02-3406-1054